

코로나 중에도 이렇게 PTA 통신을 발행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6월 15일에 학교가 재개되었지만 학교 생활에도 많은 제한이 있어 불편한 생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아이들은 매일 건강하게 등교하며 열심히 학습에 임하고 있습니다. 2학기는 교실에서의 공부 외에도 아이들끼리 운동회, 생활 발표회, 문예제, 암송대회를 실시했습니다. 보통 때와 같이, 또 보통 때 이상으로 노력하는 많은 아이들의 모습에서부터, 학생들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으며 「단결력」에 압도될 만큼 그 「느낌함」에도 감동했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만, 향후에도 본교 아이들이 「힘」차게 학교 생활을 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교장 이 종 건

## 코로나 19에 지지말자!

## 전기 학생회 활동을 소개합니다

중학

고교

안녕하세요! 중학교 학생회는 올해부터 문화 위원, 정비 위원, 보건체육 위원을 일원화하고 학생회 위원으로 재편성했습니다. 중학교 학생회에서는 초등학교, 고등학교와 합동으로 칠월칠석의 소원종이 만들기를 실시했습니다. 심플한 소원에서 유니크한 소원까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400개 이상의 소원종이를 대나무에 묶는 작업은 힘들었지만, 학생회 위원의 학생들을 비롯해 자발적인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꾸밀 수 있었습니다. 많은 소원종이가 바람에 팔랑팔랑 휘날리는 모습에 학생들도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한 풍경(윈드 차임) 만들기도 중고 합동으로 실시했습니다. 잘 만들어진 것을 골라 사무실 앞 눈에 잘 띄는 곳에 전시했습니다. 선정된 학생들은 뿌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코미야마 공무점 込山 대표이사님과 함께



平澤 스미요시 구청장님과 함께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2030년까지의 목표로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실천해야 할 「SDGs」의 달성. 건국 고등학교에서는 이미 행동을 개시하였습니다. 작년 이래, 우리들은 조사·연구와 실천을 거듭, SDGs의 교내 인지도 100%를 달성하고, 지역 공헌하는 학교로서 시 안에서 처음으로 재해 협력 사업소에 인정되었습니다.

연구를 위해 학생회 유지는 8월에 부(도)회원의 中村 広美 씨와 간담.

「SDGs와 환경 문제」를 논의하고, 스미요시구 교육 문화과 과장 米澤 씨를 소개받았습니다. 米澤 과장에게는 「스미요시구와 외국인」, 「구민과 마을 조성」을 주제로 연수를 받는 등, 건국 자체의 SDGs 실천을 확대하여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 공헌 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는 오사카 신용금고의 스키모토 지점장 南本 씨의 소개로 스미요시구에 뿌리 내리고 도시 만들기에 공헌하고 있는 「코미야마 공무점」을 소개받아 대표이사로 계신 込山 씨도 간담에 참여해 주시어, 「거리 만들기」와 「팀워크의 중요성」, 그리고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건축과 폐가 활용, 「친환경 도시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건국 고등학교는 하나가 돼서, 지역 공헌에 힘쓰는 건국, 국제 문제와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 힘쓰는 건국으로, 국제 사회를 주도 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해 가겠습니다.

PTA 연수 기획! 제1탄! 크리스마스 리스 제작



자세한 내용은 배포 한 체험 강습회의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신청은 서둘러 주세요

후레쉬 리스  
크리스마스 리스  
기대되네요♪

올해는 평년과는 다른 1년이 됐습니다만, 모두가 미소 지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PTA 활동에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PTA 임원 일동

コロナ禍でも、このように PTA 通信が発行されることをうれしく思います。

6月15日に学校が再開しましたが、学校生活にもたくさんの制限があり、不自由な生活は続いています。しかし、そのような中でも、子どもたちは毎日元気で登校し、しっかりと学習しています。

2学期は教室での勉強以外に、子供たちだけで運動会、生活発表会、文芸祭、暗唱大会を行いました。普段通り、また普段以上に頑張るたくさんの子供たちの姿から、彼らの「底力」を感じ、「団結力」に圧倒され、「逞しさ」に感動しました。

今のこの状況が、いつ終息するかは誰も予想はできませんが、今後も本校の子どもたちが「力」強く学校生活することを期待します。

校長 李 鐘 建

## コロナ禍に負けない 前期生徒会活動紹介します

中学

高校

アンニョンハセヨ！中学生徒会は今年から文化委員、整備委員、保体委員を一本化し、生徒会委員として再編しました。中学生徒会では、小学校、高校と合同で、七夕の短冊づくりを行いました。シンプルな願い事からユニークな願い事まで様々なものがありました。400枚以上の短冊を笹にくくりつける作業は大変でしたが、生徒会委員の生徒を始め、有志の生徒たちに手伝ってもらい、無事飾り付けることができました。たくさん短冊が風にヒラヒラとなびく様子に、生徒たちもやりがいを感じていました。また、風鈴づくりも中高合同で行いました。うまくできたものは選抜し、事務所前のとても目立つところに展示しました。選ばれた生徒は得意げな様子でした。





コミヤマ工務店 込山代表取締役と



平澤住吉区長と

持続可能な社会を構築するため、2030年までの目標として、全世界の人々が実践すべき「SDGs」の達成。建国高校ではすでに行動が開始されています。

昨年来、私たちは調査・研究と実践を重ね、SDGsの校内認知度100%を達成し、地域貢献のもと、学校として市内で初めて災害時協力事業所に認定されました。

研究のため生徒会有志は、8月に府会議員の中村広美さんと懇談。「SDGsと環境問題」を議論し、住吉区の教育文化課課長米澤さんを紹介してもらいました。米澤課長には「住吉区と外国人」、「区民と街づくり」をテーマに研修してもらうなど、建国独自のSDGs実践を大きく進めることができました。

さらに、社会貢献事業にも力を入れている大阪信用金庫の杉本町支店長南本さんの紹介で、住吉区に根差して、街づくりに貢献している「コミヤマ工務店」さんを紹介され、取締役の込山さんとも懇談させていただき、「街づくり」や「チームワークの重要性」、そして、いま取り組んでおられる建築や廃屋の活用、「環境に優しい街づくり」について話を聞かせていただきました。

これからも、建国高校生は一丸となって、地域貢献ができる建国、国際問題や環境問題に取り組む建国として、国際社会を牽引できる人材に成長していきます。

## PTA 研修企画！第1弾！クリスマスリース制作。



詳しくは配布済みの体験講習会の案内をご覧ください。

お申し込みはお早めに

フレッシュリース  
クリスマスリース  
楽しみですね

今年度はいつもと違う1年になっていますが、みんなの笑顔のためにできることを考えていきます。

今後とも、PTA活動にご理解・ご協力をよろしくお願い致します。

PTA 役員一同